

향도[香徒] 민간의 불교 신앙생활



1 개요

향도(香徒)는 향(香)을 매개로 하여 군현 또는 촌락 단위로 조직된 불교 신앙조직이자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불교 신앙 결사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된 조직의 일종이며, 구성원들의 해탈이나 열반, 깨달음을 소망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탑(塔), 불상(佛像) 등을 조성하고 종(鐘)을 주조하는 등 불교 조영물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었다.

향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신라에서부터 보이고, 이후 고려시대 크게 유행하였다. 향촌 사회의 향리층의 주도로 또는 민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향도를 조직하여 불사(佛事)를 진행하였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는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매향(埋香)이 유행하였다. 매향한 곳은 미륵불(彌勒佛)이 하생(下生)하는 곳이 되며, 매향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매향처로 여김으로써 그곳에 미륵불이 내려오기를 소망하고 현생의 수많은 위기로부터 구원 받기를 바랐다.

2 향(香)의 전래와 향도(香徒)의 발생

향도는 향을 매개로 군현 또는 촌락을 단위로 조직된 불교 신앙조직이자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이는 불교 신앙 결사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조직된 형태이다.

향도의 구성원들은 해탈, 열반, 깨달음을 소망하며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사(佛事)를 추진한다. 그 구체적인 행위로는 불탑, 불상 등을 조성하고 종을 주조하는 등 불교 조영물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사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役事)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향은 신라 눌지왕(19대 왕, 재위 417~458)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면서 불경(佛經), 불상과 함께 명단향(溟檀香)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군신(君臣)들은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 향을 싸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물었고 사문(沙門)인 묵호자(墨胡子)가 그것을 보고는 ‘이것은 향이라는 것인데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하여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통하게 하는데 쓰인다고 하여 향을 사르는 것의 영험함을 알려주었다. 관련사료 당시 왕녀가 몹시 위독하였는데 묵호자가 향을 사르며 서원(誓願)을 표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나았다고 전한다. 관련사료 이는 향을 사르는 행위가 영험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라 소지왕(21대 왕, 재위 479~500)대에는 궁궐의 내전(內殿)에 향을 사르고 불사를 행하며 수행하는 분수승(焚修僧)이 있었다. 관련사료 그의 존재를 통해 당시 신라 궁궐 안에서 향을 사르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담당 승려가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향도의 존재가 언급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김유신(金庾信, 595~673) 열전에서 확인된다. 김유신이 화랑(花郎)이 되자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의 낭도(郎徒)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 했다고 한 것이다. 관련사료 ‘용화’는 미륵(彌勒)을 뜻하므로, 김유신의 낭도가 불교, 구체적으로는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865년(경문왕 5)에 철원군 도피안사(到彼岸寺)에서 철로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당시 1,500여 명의 향도가 결연(結緣)하였다는 사실이 전한다. 철원은 신라의 수도와의 거리가相当하였던 곳으로, 그 지역의 토호층과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불사를 진행하였고 그 신앙조직으로 향도를 결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 신앙이 중앙 불교 교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확산된 양상으로 여겨진다.

향도는 발생 초기에는 중앙의 실력자와 화랑 조직을 매개로 하여 수도 경주의 왕실 귀족과의 연결구조 속에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라 통일기에는 지방사회에서도 석탑(石塔)이나 불상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지방에서 그러한 불사들을 조성한 주체들 가운데 향도가 있었다.

신라하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의 정권 다툼이 잇달아 발생하고 여기에서 밀려난 귀족들이 지방으로 낙향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는 민란이 빈발하게 된다. 이에 신라의 중앙 집권력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중앙의 통제력은 이완되고, 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호족(豪族)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향촌 사회의 토호층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던 일반 백성들은 향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바람을 담은 불사를 실현해나간다. 특히 신라말에는 이러한 향도 조직이 독자성을 띠는 현상이 전보다 보편화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3 민간의 불교 신앙심 발현

고려에 들어와서도 향촌 사회의 향리층이나 농민층이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로서 향도를 결성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또한 이들이 지방의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탑을 조성하거나 종을 주조하는 데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997년(성종 16)에 경기도 죽주(竹州)의 장명사(長命寺)의 5층석탑을 만들기 위해 결성한 향도의 사례가 있다. 관련사료 이 석탑은 현재는 인근의 칠장사에 삼층석탑으로 복원, 이전되었는데 수습된 탑지석(塔誌石)에는 석탑의 건립에 관한 발원문(發願文)과 건립을 주도한 향도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그 발원문의 내용은 997년(통화 15) 4월 27일 장명사에 오층석탑을 세우며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호장(戶長)을 비롯하여 석탑의 조성을 주도한 향도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새겨져 있다. 따라서 장명사지 석탑 건립의 주체가 향도이고, 향도를 주도한 세력은 이 지역의 호장 이하 지방 향리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010년(현종 1)에 경북 예천 개심사(開心寺)의 석탑을 조성하면서 이를 주도한 미륵향도(彌勒香徒)와 추향도(椎香徒)의 사례도 유명하다. 관련사료 추향도는 미타향도(彌陀香徒)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향도가 군(郡) 전반적인 규모를 이룬 것으로 보아 향촌사회의 불교신앙에서 향도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1131년(인종 9)에는 음양회의소(陰陽會議所)에서 만불향도(萬佛香徒)에 대한 주청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승려와 속인 잡류들이 무리를 지어 만불향도(萬佛香徒)라 하면서 염불(念佛), 독경(讀經)을 하며 허황된 짓을 하고 혹은 내외 사사(寺社)의 승도(僧徒)들이 술과 파를 팔거나 병장을 들고 포악한 짓을 하며 날뛰면서 유희를 하여 윤상(倫常)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나쁘게 하고 있으니,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사료 이는 향도로 지칭되는 승속의 무리들의 저속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당시 지역 도시의 빈곤한 계층이 향도를 표방하면서 상업 활동과 유희를 통해 자구책을 구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으며, 도시의 최하층이 향도를 주도할 정도로 불교가 여러 계층 속에 분포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4 매향(埋香)의 유행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도서 및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향(埋香)이 유행하였다. 매향은 침향(沈香)을 매개로 미륵불(彌勒佛)의 용화회(龍華會)에 참석하여 종교적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의식이다. 이때 매향처, 즉 매향한 곳은 미륵불이 하생(下生)하는 곳인데 매향 주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매향처로 여김으로써 그곳에 미륵불이 내려오기를 소망하였고 현생의 수많은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랐다. 매향을 하는 ‘이곳’에 미륵이 하생하고, 매향을 한 주체들은 그때 거기서 다시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깨달음(正覺)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는 공덕(功德)을 통해 종교적 구제를 기원한 것이었는데 매향의 주체들은 그 공덕의 범위를 자신들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 나아가 국가 전체에까지 미치기를 기원하였다.

매향의 사례는 고려초기에도 있었으나, 그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초에 해당한다. 매향은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인 위기와 불안감에 바탕을 둔 구세(救世), 기복(祈福)의 신앙형태인 미륵하생신앙과 연결되었으며, 지리적으로는 연해지역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려후기부터 연해지역은 개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토지의 비옥도가 많이 올라갔고 동시에 인구의 유입이 심해진 한편 농장이 확대되었다. 또한 매향이 유행한 시기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향촌공동체 구성원의 변화도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와 도적이 증가하는 등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촌락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매향도 전보다 더욱 유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전하는 매향비로는 당진경술년매향비(唐津庚戌年埋香碑) [관련사료](#), 당진경오년매향비(唐津庚午年埋香碑) [관련사료](#), 사천매향비(泗川埋香碑) [관련사료](#),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 [관련사료](#), 영광법성매향비(靈光法聖埋香碑) [관련사료](#),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靈巖菴吉里岩刻埋香銘) [관련사료](#), 예산효교리매향비(禮山孝橋里埋香碑) [관련사료](#), 정주매향비(定州埋香碑) [관련사료](#) 등이 있다.